

# 교육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추진

### 설립할 시도교육청 내일부터 8월26일까지 공모...1개교 당 40억원 내외 지원 계획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도교육청을 이달 24일부터 오는 8월26일까지 공모한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민간교육 전문가에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대안학교 제도가 도입한 이후 처음 추진된다.

대안학교는 현재 25개교가 운영 중이며 공립의 경우 6개교에 불과하다. 이중 다문화학교 2개교 위(Wee)스쿨 3개교를 제외하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꿈키움학교)는 한 곳 뿐이다.

교육부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1권역(서울·인천·경기), 2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 3권역(전북·광주·전남·제주), 4권역(대구·경북·강원), 5권역(부산·울산·경남) 등 권역별로 1개교씩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안교육을 연구해온 전문가가 공립학교 운영에 참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과정 도입 및 학교 밖 자원의 연계·활용 등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교육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가와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위탁 기간은 3~5년간이다.

민간운영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 어린이집의 앞날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집단 휴원 방침을 밝힌 22일 오후 어느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한편 한민련과 집단 휴원에 동참하기로 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련)는 계획을 유예한 상태다.

교장 배치,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원 정원의 30%는 자격 여부와 별개로 대안교육 전문성이 인정된 산학 겸임교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운영 자율권을 부여한 교육청은 위탁 기간 중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통한 점검과 장학지도, 사업 지원, 교원연수 등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희망자 등이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입학 대상이며 일반교과보다는 진로교육, 체험교육 등 대안교육 위주 교육과정이 편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 결과를 올해 9월 발표한 후 선정된 교육청에는 학교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1개교 당 40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 추정가액 5,000만원 이하 소액구매건 수요기관 자체구매할 수 있도록

####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조달청은 추정가액 5000만원 이하의 소액구매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수요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의 5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윈드스트라이크어뮬레 관련 구매,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대행한다.

조달청은 준비기간 동안 조달교육원을 통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수요기관 자체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소액구매 관련 시스템 개선·구축 작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조달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정우화인, 전북대 발전기금 기탁

정우화인이 전북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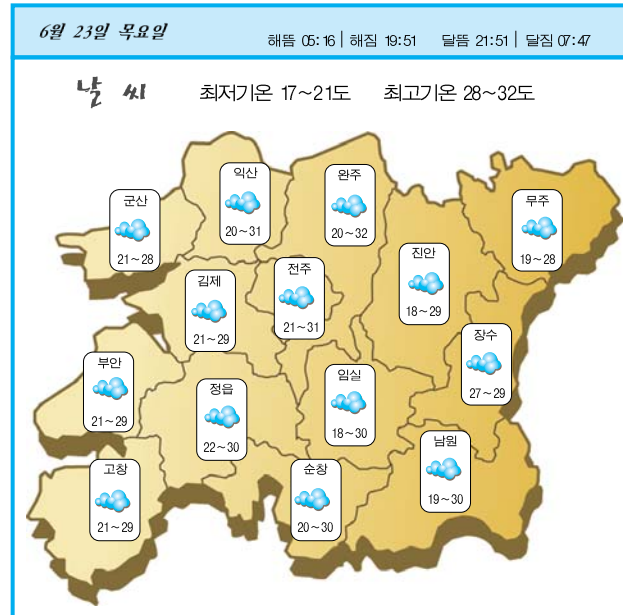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정우화인 김유석 대표(화학공학과 동문)가 후학양성에 써달라며 75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전달한 발전기금은 공대 화학공학부(5,000만원)와 자연대 화학과(2,500만원) 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화학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이끌 기반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전공을 잘 살려 해당 분야에 일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화인은 건축용 우레탄과 산업용 계면활성제 등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고민형기자



#### 전북대 공학설계 작품 전시 e+Festival 개최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e+Festival이 개최됐다.

전북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 사업단)이 주최해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지난 21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캡스톤 디자인 결과발표회를 통해 제작한 196개 작품을 전시·시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육성 아이디어 오픈 마켓을 통해 우수한 학생 아이디어 작품이 실제 기업에 기술이전 됐고 다채로운 이벤트 및 공연을 통해 학생과 기업, 지역이 하나 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대상부터 계절별 금 은 동, 장려상 우수 포

스터상까지 총 40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전자공학부에 이진호, 김신비, 이학주, 정민경 학생들로 이루어진 '포스퍼레' 팀의 '목소리를 느끼다'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 불륨 조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한 것으로 실용적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11개 기업체에서 참여 사업화가 가능한 작품을 사는 '육성 아이디어 오픈마켓'이 열려 대상작인 '목소리를 느끼다'와 '무선통신 모듈을 이용한 원격제어장치 개발', '휴대용 환경 유해물질 검출 시스템 개발' 등 모두 11개 작품이 기술이전 됐다.

/고민형기자

#### 수능 6월 모의평가 대체적으로 어렵게 출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대체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과와 통합형으로 출제된 국어와 문과생이 치르는 수학 나형의 1등급 예상 구분점수(등급컷)가 모두 하락했다. 국어와 수학 가·나형 만점자 비율도 일제히 떨어졌다. 영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 만점자 비율이 증가했지만 1등급 컷은 오히려 하락했다.

22일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으로 90점이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이과생이 치른 국어A

형(96점)에 비해 6점, 문과생이 치른 국어B형(93점)보다 3점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수학 나형의 1등급 컷은 91점으로 지난해 수능(95점)보다 4점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94점)에서 1점 정도 떨어진 93점이였다.

만점자 비율도 하락 곡선을 그렸다.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만점자 비율이 모두 1%를 넘기지 못했다. 6월 수능 모의평가 만점자 비율은 국어 0.17%, 수학 0.15%(나형)~0.31%(가형), 영어 0.57%로 나타났다.

/박용주기자